

# 300마력 심장 가슴을 두드린다



두번째 SUV 모델...하이브리드 인기 'GT'·'모데나' 등 3가지 트림 국내 출시  
주행·엔진 성능 높이고 연비 개선  
첨단 사양에 21개 스피커·3D 사운드 제공  
SUV 전향 고객에 다양한 선택지 제공



최근 자동차 시장은 국산 차량뿐만 아니라 수입 차량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단보다 SUV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SUV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세라티 '그레칼레(Grecale)'가 자동차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중해에서 부는 북동풍"-일상에 특별함이 스며든다 = 그레칼레는 110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마세라티에서 선보이는 두번째 SUV 차량이다. 지난 2022년 11월 출시된 이후 우아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로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그레칼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GT', '모데나(Modena)' 트림과 V6 내튜노 엔진을 탑재한 '트로페오(Trofeo)' 세 가지 트림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그레칼레 GT 내부.

이 중 하이브리드 모델에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분기 그레칼레 'GT'와 '모데나'의 판매량은 마세라티 전체 판매량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레칼레GT'는 마세라티 라인업 특유의 퍼포먼스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T' 트림은 30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복합연비 9.9km/l로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연비를 자랑한다.

하이브리드버전의 그레칼레는 4기통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됐다. 높은 성능과 효율적인 연비를 자랑한다. 높은 연비를 선보임에도 마세라티가 자랑하는 엔진 성능과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배기음도 여전하다.

그레칼레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그레칼레의 휠베이스(앞-뒤바퀴축간 거리, 2901mm)는 르반데보다 짧지만, 경쟁모델인 포르쉐의 카에널 보다 길다.

또 SUV임에도 성능 면에서는 슈퍼 스포츠카로 분류되는 MC20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어 MC20과 같은 내튜노 엔진이 장착돼 530마력의 힘을 내는 '트로페오'를 중심

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GT'와 '모데나'까지 3개 트림으로 출시됐다.

트로페오 모델의 최고속도는 시속 285km이고, 제로백은 3.8초에 달한다.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델 =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벨트스타터제너레이터(BSG), 48V 배터리, e-부스터, DC/DC 컨버터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BSG 및 부스터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SUV인 그레칼레는, 동급 모델의 하이브리드 엔진과 달리 스포츠모드에서 최대 부하로 작동하고 있을 때도 모든 성능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스터를 제공한다. 노멀모드에서는 연료소비와 성능의 균형을 이룬다.

마세라티의 새바람을 몰고올 그레칼레는 동급 경쟁사대인 포르쉐 카이엔과 크기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사이즈로, 프리미엄 세단에서 SUV로 전향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모델이다.

차체 크기는 중형급이지만 실내공간은 동급 모델 대비 최강을 자랑한다. 내부 편의 사양이 디지털화로 큰 변화를 보여준 덕분이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다. 플로어 아래 추가 적재함을 가

지고 있으며 트렁크에 있는 버튼으로 2열을 폴딩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트렁크의 용량은 535-570 l이다.

무엇보다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럭셔리함과 레이싱 헤리티지를 담아낸 디자인이 압권이다. 그레칼레 인테리어 디자인은 깔끔하고 모던하면서 감성적인 디자인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실내에는 클래식 클러스터와 중앙의 새로운 12.3인치 패널, 추가 제어 기능이 포함된 8.8인치 콤포트 패널, 새로운 디지털시계 등, 최소 4개의 화면이 장착돼 있다. 중앙 패널에서 버튼이 사라지면서 넓은 암레스트, 더블 버터플라이 도어가 달린 대형 수납 공간, 후대전화 충전 패드를 배치할 공간이 확보됐다.

이번 그레칼레에는 소너스파베르(Sonus faber)사의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탈리아의 사운드 전문 업체인 소너스파베르가 설계 및 제작한 이 사운드 시스템은 두 가지 수준의 사용자 정의를 제공한다. 그 중 하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특별한 사운드의 완전함과 심도를 위해 최대 1285W의 출력으로 21개의 스피커와 3D 사운드를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다시 달려볼까?” 그란투리스모, 시즌2 개봉박두

5년만에 새 모델 전기차 등 3가지 버전 출시...엔진·첨단 사양 업그레이드



마세라티는 올해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럭셔리 스포츠 쿠페 '그란투리스모'를 새롭게 출시한다.

그란투리스모는 2007년 1세대 출시 이후, 국내 럭셔리 스포츠카 매니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2019년 단종됐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완전히 새로워진, '올 뉴 그란투리스모(All New GranTurismo)'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가 예정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세대 그란투리스모'는 클래식카의 유려한 곡선미와 현대적 스타일을 재해석했다.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모델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그란투리스모는 강력한 내연기관을 탑재한 2가지 트림과 순수 전기차 버전, 총 3가지로 출시된다.

V6 내튜노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된 490마력의 모데나(Modena), MC20 내튜노 엔진 기반으로 550마력의 고성능 V6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트로페오(Trofeo), 그리고 800V 기술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는 완전 전동화 버전 폴고레(Folgore)로 구분된다.

그란투리스모 엔진은 MC20 내튜노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지만 차량 특성을 고려해 완전히 재설계되었다. MC20 내튜노와 달리 6기통 그란투리스모에는 드라이 셉프(dry sump)가 아닌 웨트 셉프(wet sump)가 적용된

다. 또한, 최적화된 기술이 탑재된 실린더 비활성화 기능을 갖춘 엔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특정 작동 조건에서는 실린더 뱅크가 비활성화될 수 있으며 특수한 태핏 시스템을 통해 전체 밸브트레인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된다.

엔진의 기술은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연료 소비량을 낮춰주며 CO2 배출을 상당히 줄여준다. 해당 엔진은 앞서 MC20에서 공개되었던 연소 시스템으로, 별도의 챔버에서 연료를 점화시키는 패시브 프리챔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 솔루션이다.

또한, 마세라티의 첫 전동화 폴고레 파워트레인은 성능과 충전 시간 모두 현재 최고 기술인 800V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3개의 모터(전륜에 1개, 후륜에 2개)로 구동되며 모터의 총 출력은 1200마력 이상이다.

그란투리스모폴고레 시스템은 최대 0.65g의 회생 제동을 제공하여 제동 중 에너지를 회수하고 최대 400kW의 최고 충전 속도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유한 이탈리아 럭셔리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났다. 이탈리아 건축 및 공예 기술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뿐 아니라, 100% 이탈리아에서 제작으로 소재와 기술 모두 장인 정신이 반영됐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명품 사운드 업체, '소너스파베르' 오디오를 탑재해 이탈리아 감성을 더욱 강화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